

옛 국정원 광주 청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광주시, 이달 중 매입

옛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청사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서구 화정동 옛 국정원 광주지부 청사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이달 중 2천510㎡의 부지와 연면적 1천737㎡(지하 1층, 지상 3층)의 본관 건물 매입할 계획이다. 시는 국비 8억원, 시비 9억원 등 모두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입한 건물을 복고풍과 인터넷카페, 문화·미디어·다용도실, 동아리실과 회의실을 갖춘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시는 오는 9월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후식기자 who@

여름 휴가철 무등산에 수박 가져오지 마세요

광주시가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수박 안 가져 오기 운동'을 펼친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최근 5개 조 54명씩의 단속반을 편성해 '수박 안 가져 오기 운동' 홍보에 나섰다. 여름 휴가철이면 원호사 계곡 등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수박으로 인한 쓰레기가 1t 가까이 발생해 계곡물 오염과 악취 발생 등 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반은 수박을 가져올 때에는 화재로 만들어 그곳에 담아 가져오도록 안내하고 수박껍질 등 쓰레기는 반드시 퇴각해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수박껍질 등 음식물쓰레기 투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산을 쾌적한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

# 공공시설 야간경관조명 전면 소등

## 광주시 고강도 에너지 절약... 승용차 홀짝제 시행·관용차 운행 30% 감축

광주시가 공공 시설물 야간 조명등 가동을 중단하고 관용차량 운행에 대폭 감축하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8일 최종만 행정부시장 주재로 분청과 직속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절약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오는 15일부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현행 승용차 5부제를 홀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용차량

운행도 30% 감축하고 관용차량의 50%를 오는 2012년까지 경차와 하이브리드카로 대체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현행 4층 이상 격층 운행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부터 격층 운행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실내온도도 27도, 겨울철은 19도도 각 1도씩 조정된다. 최근 광주전 교량경관사업으로 설치된 교량 경관등을 비롯해 기념탑, 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

명 시설의 가동도 전면 중단된다. 일 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일출 때까지 격등제로 가동된다. 시는 민간 부문에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승용차 자율 요일제를 확대·시행하고,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과 카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실내 온도를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권고하고, 시민단

체와 공동 캠페인을 통해 자율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대중 목욕탕에 격주 휴무를 권장하고 유흥음식점의 야간영업시간 단축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조명 부문에서는 옥외 간판과 조명사용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역사·예술 숨쉬는 광주천 다리

### 양림·사직 등 5개교 새 단장...광주 랜드마크 부상



양림교와 금교, 서석교(사진 왼쪽부터) 등 광주천 교량 가운데 도심에 위치한 5개 다리가 새로이 단장됐다. 광주시는 이번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단조로운 콘크리트 구조물로 퇴색이 심했던 기존 교량들을 문화중심도시의 이미지 및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어울리도록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이번 공사는 오는 2009년까지 추진되는 광주천 동구 원지교~서구 광암교 구간 20개 다리에 대한 경관개선 1단계 사업. 전국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다리 경관은 남강교의 경우 '출날리는 생명의 빛', 화강교는 '하의 날개 짓으로 환하게 피어오르는 자연의 빛', 양림교는 '고싸움으로 화합과 풍년, 평안을 기원하는 솟구치는 빛'을 형상화했다. 또 금교는 '광주천 옛 이름인 금계(錦溪), 비단의 물결', 서석교는 '새로운 광주천으로 초대하는 관문(광주읍성)의 빛'의 이미지를 담았다. 김정은 광주시 도로과장은 "광주를 '역사와 빛, 예술이 살아숨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광주천을 자연과 첨단이 공존하는 광주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서 국제 빛의 도시聯 2009 연차총회 인천시 양보로 단독 개최

광주시가 'LUCI(국제 빛의 도시연합) 2009 연차총회'를 단독 개최하게 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 빛의 도시 연합체인 '국제 빛의 도시연합(LUCI) 2009 연차 총회'를 광주에서 열기로 했다. 행사는 내년 광주 세계 광엑스포(10월9일~11월5일) 기간 동안 열린다. 당초 시는 인천시와 LUCI 연차총회를 공동 유치했으나 인천시의 양보

로 광주에서 모든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최근 전화를 통해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광주시가 행사를 단독 개최하는 방안을 전할, 안 시장의 양보를 얻어냈다. 안 시장은 "행사의 성격상 광주시가 개최하는 것이 걸맞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광엑스포는 LUCI 회원 도시 관계자 50명과 필립스 등 해외 유명 조명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

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행사는 모두 4일 동안 진행되며 LUCI집행위원회의, 정기총회, 세계 빛의 도시전시관 개관식, 컨퍼런스, 광주·전남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는 대회 개최를 양보한 인천시를 위해 내년에 열리는 인천 세계 도시 축전 관람 프로그램을 행사 일정에 추가할 예정이다. 총회를 계기로 광주시는 야간경관

조명과 빛의 축제 부문을 선도하는 LUCI 회원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 광주를 세계적인 빛의 도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UCI는 세계적인 빛의 도시 프랑스 파리과 리옹, 영국의 글래스고우 등 30개국 55개 회원도시와 필립스 등 20여개의 조명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빛과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소비자 피해 구제 1위는 건강식품

### 광주시 소비생활센터 상반기 1,297건 상담

올들어 광주지역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건강식품과 이동전화 서비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인 상담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6.0% 감소했으며, 실제 피해구제는 전체의 1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소비생활센터가 올 상반기에 처리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모두 1천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건(6.0%) 감소했다. 하지만 피해 상담 가운데 조정요청과 환급·교환요구, 계약해지 등 순수한 피해구제는 225건(17.3%)에 그쳤고 나머지 1천72건(82.7%)은 보상기준 설명, 구제절차 안내 등 정보 제공에 머물렀다. 소비자 상담에 의한 피해구제 품목으로는 건강식품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 서비스 49건, 세탁 서비스 45건, 학습지 42건, 컴퓨터통신교육 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후식기자 who@

이 가운데 건강식품과 이동전화 서비스, 학습지 등은 지난해에 이어 상위 5대 피해품목에 포함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으로 지적됐다. 상담 분야별로는 물품 분야 675건, 서비스 622건이었으며, 청구 사유별로는 계약해지 371건(28.6%), 약관 문의 231건(17.8%), 제도설명 169건(13.0%), 부당행위 시정요구 168건(13.0%), 기타 358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 방법별로는 대면 거래 방식의 일반판매는 883건(68.1%), 방문판매는 200건(15.4%)이었고 비대면·무점포 거래방식의 전자상거래 77건(5.9%), 텔레마케팅 75건(5.8%)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일반판매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지만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노력과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조선포대 MCB사업단 무료 중국어 강좌

조선포대 MCB사업단(단장 전의천)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중국어 강좌를 개설한다. 오는 14일부터 8월14일(목)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12시 조선포대 4층 425강의실에서 진행되는 무료 중국어 강좌는 외부강사가 회화 위주로 강의한다. 접수는 11일 까지이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교육부 NURI사업 중 하나로 진행 되는 조선포대 MCB(Multi-talented China Businessman)사업단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중국 현지교육, 국내 및 중국 현지 기업인턴십, 장학금 지원, 학생활동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문의는 홈페이지(mcb.chosun.ac.kr) 또는 전화(062-230-7283)로 하면 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노벨상 광주정상회의 기념조형물 홍보 화보집

지난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광주선언문' 정신을 깊이 이어가기 위해 설치된 기념조형물(사진)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화보집이 발간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펴낸 이 책자는 ▲평화의 씨를 뿌리다 ▲평화의 싹이 움트다 ▲평화의 꽃을 피우다 ▲평화의 열매, 깊게 뿌리내리다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광역시 100주년 기념 사업... 011-450-5229

**백지문명**

백지문명... 011-450-5229

080-361-7000

# 강한 남 '성'의 힘! MAN2080!

080-361-7000